

☒ 응용논문

한국과 일본의 기업풍토 및 경영성과 차이에 대한  
휴먼웨어적 접근

- 동일 유전자 측면을 기초로 하여 -

Human-ware Approach on the Difference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and Japan

-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Gene -

이 철우\*

Cheol-woo Lee

서 윤정\*\*

Yoon-jeong Seo

Abstract

In this paper, we would be searching for the complementary aspects in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compared with that of Japan. It is very reasonable that historical, geographical, and especially gene analysis data are almost identical, considering that the general evaluations to the motive of Japan's industry are 「the modernization of the tradition」.

Although it is reported Korea accomplished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the economic growth rate (efficiency) could not be continued. This reason looks like that Korean proper (eigen) traits (Gene-ware) have been oppressed and concealed by social climate such as jealousy, stratagem and hatred, we can find one of these facts in the criminal and complaint numbers as social trust measurement. There are many cases that Korean industry was distorted by the superiority/inferiority relations, for examples, the loss of the native (eigen or proper) resources, a distorted introduction of the production method and the unfolding of the industry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In these reasons, Korean industry could not play the role of Human-ware function which activates Gene-ware or, **Gene-Nascence**.

In these Human-ware aspects, Japanese characteristics, such as 「Getting the basic right」 and 「Tendency to the origin」, are to be useful in the Nascence of Gene-ware in Korean industry.

1. 서론

교육 및 지식 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비교적 단 시간내에 구축할 수 있으며 자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제도나 기술 등의 기법(Craft) 보다는 예컨대, 「특정 지역의 생산라인은 곧 문화의 라인」 [26]이라는 어구가 상징하듯, 기업경영에 있어서 그 핵심적 요인은 구성원들의 태도 및 인성이었던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 남서울대학교 강사

\*\*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인간의 내면적 특성으로서 인성(Attitude)의 계발은 기법(Craft)의 도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오랜 성숙의 과정을 고려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우선 그 특징을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풍토 등의 바탕에 파악하여 그 장점을 발굴하고 이해하여 생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타 지역에도 그 지역 인성의 특징을 계발 할 수 있는 계기 및 동기적 측면에서도 또한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잉사나 몬산토사 등의 기업들이 동양의 참선, 수도 등을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정신경영의 전개(한국경제, 1999.9.30 : 매킨지 보고서 인용)와 그리고 GM이나 클라이슬러사 등이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는 경향은 과거 테일러(F.W. Taylor)가 청교도 정신이라는 그 지역 특유의 정신을 중첩근거로 하여 경영자와 노동자의 협력을 꾀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동양적 풍토를 통해 그 중첩근거를 기업적으로 새로이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도 이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가로서 문화적으로도 그 교류가 많아 왔다는 측면과 함께 더욱이 최근 유전자 분석자료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양 지역민의 공통점은 인성의 측면에서도 이해 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유전자는 현대과학에 의해 파악된 인간의 모습 중 가장 기초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며, 휴먼바이올로지(Human Biology)[5]<sup>1)</sup>, 진화론적 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39]<sup>2)</sup> 그리고 사회생물학(Sociobiology)[31]<sup>3)</sup>등의 전개와 그 연구성과로 인해 오히려 기존 경영관리 및 여러 사회적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의 나름의 논리 전개는 유전자적 동일성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영성과 및 그 풍토를 재 고찰 할 필요성을 지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동일 유전자 측면을 기초로 하여 양 지역의 경영성과 및 기업풍토의 차이를 인간의 유전자적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생리적이며 본능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진웨어(Gene-ware : 인적 측면의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진웨어의 활동을 위한 수·발신(受·發信)체 역할을 하는 휴먼웨어(Human-ware : 인적측면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라는 체계 하에서 분석·접근하고자 하며, 이러한 휴먼웨어의 기능에 양국의 산업역할이 어느 정도 접근해 왔는가 하는 분석을 통해, 그 동기 및 더 나아가서 한국산업의 보완적인 측면을 일본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한일 유전자 동일성과 경영성과 및 기업풍토의 차이

### 2.1 한국과 일본의 유전자 동일성과 경영적 의미

다음은 유전자 분석기법의 발달로 인해 파악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적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 1) 분자생물학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DNA의 나선구조상에 있는 정보량과 환경조건에 의한 제어장치(trigger)로서 인간의 행동적·심리적·지적인 특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 2) 진화론적 심리학은 행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 비교행동학(Comparative Ethology), 신경심리학(Neuropsychology), 고생물학(Paleontology),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등의 여섯가지의 학문분야를 수렴하여 다져진 것이다. 특히 진화론적 심리학은 인간성격은 바른 훈련과 동기부여를 통해 바뀔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반적 경영이론의 상당 부분을 직접문제삼고 있으며, 인간은 생물발생적으로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인간은 일정한 성향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잠재적인 성향에 대해 보완할 수도 있지만 뿌리 깊은 성향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등의 인성(人性)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3) 인간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하여 기존의 문화적 차원과 더불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도 일컬어질 정도로, 유전자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여러 제도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① Jared Diamond 교수의 DNA 분석 결과 일본 원주민이라 알려진 아나투족의 유골을 제외하고, 모든 일본인의 유골은 현대 일본인이나 한국인을 닮은 동일한 그룹을 형성하고, 유전자 풀과 관련된 영향을 계산한 유전학자들은 실제로 한국으로부터의 이주는 현대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있다[37].

② 한국인들의 일본유입경로를, 기원전 4세기경에 한국 남반도에서 후쿠호카를 걸쳐, 여기서 1,500-2,000년 전에 규슈, 시코쿠, 오사카, 혼슈등의 지역으로 신기술을 가진 한국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36]고 하며, 대표적으로 일본의 형질인류학자 하니하라 가즈로(直原和郎)는 일본의 야요이시대(B.C 3 ~ A.D 3C)에서 고분시대(A.D 4~6C)에 이르는 일본인의 구성비율 중 80%가량이 대륙계 도래인 특히 한반도계 이주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4].

③ 사토시 호라이(Satoshi Horai)는 일본 전 인구집단에 대한 유전자 연구조사에서 일본인 유전자 풀(pool)의 약 65%가 야요이 시대 이후 대륙으로부터(특히 한국)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38].

④ 다나베(田名部 雄一)는 일본개의 혈액단백질의 혈연관계를 조사하여 한국의 삼살개, 진돗개 등이 일본개들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과거 어느 시점(일본 야요이 시대 추정)에서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갔음을 추정하고 있다[35].

⑤ 한국의 김옥 및 남궁용, 홍성수 박사팀은 민족별 유전적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 민족집단이 일본인 집단과 가장 밀접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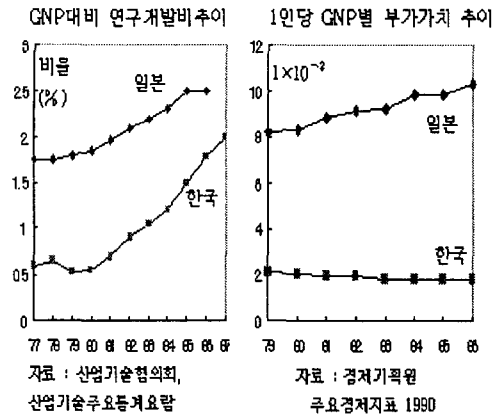
비교경영론의 측면에서 일반적 사회현상과 기층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라 국민의 생리요소가 변화되는 데는 수 만년이 걸리며 기본언어는 수 천년 내지 300여년이 걸린다[2]고 보고 있어, 문화적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뿐 아니라 위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태도(Attitude)에 내포된 공통된 측면을 더욱 뚜렷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22].

대표적인 예로서, 일반적 대중의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에서도, 그리고 경영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도 이러한 동일 유전자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민요가 일본의 엔가[33]로, 일본의 가요가 독립운동가 등으로도 불리어 졌다는 자료[6]도 제시되고 있으며, 12개국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타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시간에 대한 유사한 동시성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제시되었다[32]. 특히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문화를 구별짓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고려되어 진다[13]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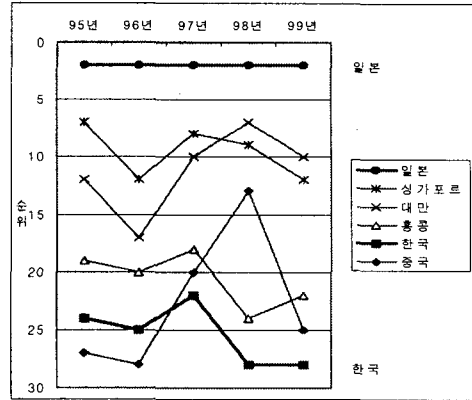
이렇듯, 사회문화적 성향 뿐 아니라, 특히 실제적으로도 여러 유전자 분석자료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시너지(Synergy)를 발현시키는 입장의 태도 및 인성의 측면에서 분류·이해 될 수 있어, 경영풍토 및 그 성과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부족부분을 일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기적적”이라 불리는 일본의 산업 및 경제성장의 바탕과 그 고유 원동력 가운데에서 한국의 고유기질의 생산적, 산업적 발현의 가능성과 그 희소가치를 경영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 2.2 한·일 경영성과 및 기업풍토의 차이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더 근본적인 유전자적으로도 그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그림1]과 [그림2]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표적인 예로서 연구개발비용대비 부가가치[24]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98년도 국가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연구개발투자비와 연구인력은 각각 7위, 2위이며,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은 각각 28위, 2위라고 한다) 것처럼 경영이나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틀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한·일 연구개발 비용대비 부가가치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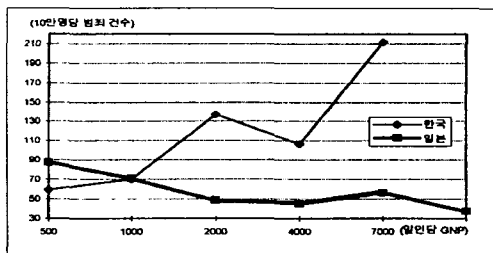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경쟁국의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기업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자세, 가치의식, 행동원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조직에서 활동한다는 것[17][25]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사회적 신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범죄건수나 고소량 등에서도 찾을 수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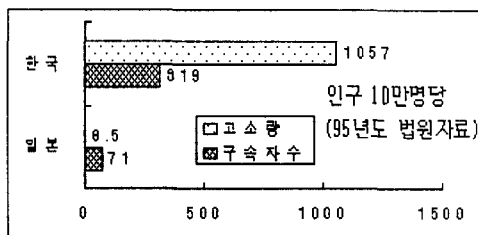
아무리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나거나 창조적 성과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기업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협조와 조화등의 어울림(齊攸性: Congruency)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증오심이나, 시기·모략케 되는 풍토의 정도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본원(本源)의 작업(Task)이나 창조적 발상은 제 2순위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 개개인의 노력이 시너지로 연결될 수 없어, 그 노력이 기업의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그림 3] 처럼 일본이 1인당 GNP가 높아질수록 범죄발생건수가 하강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21]이나, [그림 4]에서 처럼, 한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고소건수는 일본의 8.5명에 비해 무려 124배('95년도)에 이르고 있는[30] 이와 같은 대표적인 풍토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한 강압적(혹은



[그림 3] 1인당 GNP대비 한일간의 사기범죄건수



[그림 4] 한일간 구속자수 및 고소량 비교

깎보는)인 자세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차이만큼 한국이 일본에 비해, 서로 어울려(Congruency)져 시너지(Synergy)를 발현치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자연 조건의 차이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경제(Economy)의 어원-가정(Oikos:家)을 다스린다(Nomos: 規範)-에서도 나타나는 바, 개개인의 생존의의(生存意義)와 생존조건(生存條件)의 입장에서 산업[18]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그 동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진웨어(Gene-ware : 인적 측면의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진웨어의 활동을 위한 수·발신(受·發信)체 역할을 하는 휴먼웨어(Human-ware : 인적측면의 소프트웨어) [19][7][9][10][11][22][23]의 기능에 양국의 산업역할이 어느 정도 접근해 왔는지를 통해, 그 동기 및 더 나아가서 한국산업의 보완적인 측면을 일본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3. 휴먼웨어(Human-ware)의 구도 및 그 기능의 기준(Criteria)

#### 3.1 휴먼웨어의 전제

휴먼웨어(Human-ware)는 기술과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별개의 차원의 것, 또는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기술 및 기술혁신에 있어서 인간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34]으로서 등장되었다.

그러나 중첩근거에 의한 경영자와 노동자의 협력이 그 핵심이었던 테일러시스템이 성과급 제도의 기법만이 강조되어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이나 도구처럼 취급하였다’는 시각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의 본원적 요소가 등한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도의나 윤리가 전제가 되어 현재까지 사용·소진되어 왔지만 그 동안의 기술 및 기법의 발달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도의나 윤리는 계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개인 내부에서의 「내면적 자기 퇴진」의 증가, 그리고 기업차원에서의 「인성 중시」와 같은 사훈의 등장은 새로운 도의나 윤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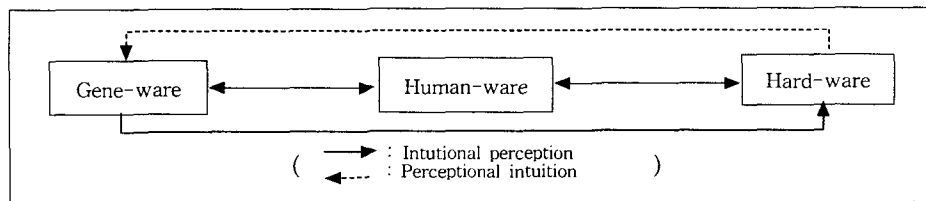
그러나 베블렌(Veblen, T.)이 말한 바의 공장본능(The instinct of workmanship)에서도 나타나는 바, 노동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생명공학의 전개를 고려하더라도, 휴먼웨어는 기술의 연속선상이 아닌 인간의 생명 중심적(Gene paradigm) 활동의 근거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2 휴먼웨어(Human-ware)의 구도 및 진웨어(Gene-ware)

인간의 생명적 특질을 내포한 유전자적 구조와 기능을 진웨어(Gene-ware)로 구상하면, 제반 환경속에서 진웨어의 수신/발신체적 방법 및 도구로서 휴먼웨어(Human-ware)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림 5]과 같이, 인간의 쉽게 바뀔 수 없는 하드웨어로서 쉽게 바뀔수 없는 생명적 유전자적 특질의 중심인 진웨어(Gene-ware : 溜晶(유정: Gene-duum : Gene-kuum) [19][20]의 System)와 외생적 제반여건의 중심(: Hard-ware)사이에서, 이 둘의 교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적 구조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휴먼웨어(Human-ware)를 체계화 할 수 있다.



[그림 5] 휴먼웨어의 구도

여기서 진웨어(Gene-ware)는 생존의의(生存意義)와 생존조건(生存條件)의 지속적인 자기 존속을 위해,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교차감응을 한다.

이는 생명체의 기본적 작용인 이를테면 자기 내(內) 진향성(眞向性 : Geneduction: 시간지향적인 생명차원의 활동)으로 인해, 원시적 여러 본능들이 어울려져(齊攸性: Congruency)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 여러 사상과의 교차하는, 곧 그 교차

탄력성 과정[19][20][11]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웨어(Gene-ware)는 감수분열(Meiosis)의 수정란(Fertile Ovum)史[11]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져, 이로 인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소재가 집약·내포되어 있어 현재라는 시점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각각 나름의 고유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 3.3 휴먼웨어 기능의 기준 (Criteria)

휴먼웨어(Human-ware)는 진웨어(Gene-ware)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탄력적 반응을 할 때 작용케 되는 제 감각의 도구(眼耳鼻舌身知情意靈)로서, 그 기능의 기준은 진웨어의 진향성(眞向性 : Gene-duction) 활동에 있어서 최단 가능한(fast and shortest feasible solution) 수신 발신의 방법을 제공하는 매개체(Catalyst : 이를테면 카타라제(Catalase) 효소는  $2H_2O_2 \rightarrow 2H_2O + O_2$ 의 반응에 촉매작용을 하는데 촉매가 없는 상태보다  $10^{14}$ 배 이상 빨라진다고 한다)적 역할의 수행인 것이다.

이러한 휴먼웨어가 진웨어 활동과 결부되어 생성된 산물은, 휴먼웨어의 연속으로서 진웨어 활동 자유도에 기여하게 되는 또 다른 매개체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지식이나 정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축적이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진웨어(Gene-ware)의 활동이 시간적으로도 빨라질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넓어 질 수 있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만이 강조된다는 등의 부분의 단편적인 것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 매체가 실제로 착각되기 쉬어, 자칫 휴먼웨어적 기능이 상실된 채, 오히려 진웨어를 은폐시키고 억압하기도 한다.

이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작용인 진향성(Gene-duction)을 방해하여, 사실상의 생존조건과 생존의의의 자기손실이 상실·파괴되어 오히려 이를테면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웨어(Gene-ware)는 왜곡된 휴먼웨어(Human-ware)에 의하여 가리워 질 수는 있어도, 변질되기 힘든 그러한 인간의 하드웨어인 것이다. 따라서 진웨어의 특징 및 기능이 휴먼웨어를 통해 나타났을 때, 바로 인간 본원(本源)의 동기가 발현되는 것, 즉 **즈네상스(Gene-Nascence)** [18][19][20]로 볼 수 있다.

## 4. 한국과 일본의 기업풍토 및 그 성과차이에 대한 휴먼웨어적 접근

### 4.1 한국 산업의 휴먼웨어적인 특징

한국의 산업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계발하여 생존의의(生存意義)와 생존조건(生存條件)을 찾고자 하는 자생력을 위한 방법으로 보이기 보다는, 그 지향성이 약하여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많아 보인다.

이를테면, 수 많은 토종들의 상실, 지역특색과 무관한 산업의 진행, 따라하기식 사업추진[29], 그리고 왜곡된 생산방식의 도입[14]등의 경우가 많아 왔던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외부적으로는 4대 강국, 내부적으로는 4색 당파로 상징될 수 있는 끊임없는 외환 및 지도층이나 국가에 대한 원한과 불신에 기인(이러한 특징이 현대 한국의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16][3][15]이 많다)한 듯한, 좌절·자기파괴·굴종등의 도착(Perversion) 및 우월감이나 열등감등의 콤플렉스(Complex)같은 타자를 의식한 동기의 심화에서 그 기원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인의 언어사용양태와 생활양식을 보면 “감투”나 “한자리”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다[27][28]고 한다

이를테면, 과거 유교사상이 지배층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1][17]도 있듯이, 현

대는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산업 또한 「권력」 「금력」 「명예욕」을 지향한 상대방에 대한 「허영」 「오만」 「지배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온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한국 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를 왜곡시키거나 수익성이나 가치를 배제한 의사결정등의 비합리적인 부분, 그리고 외국의 한국기업 인수와 국내 기업의 외자유치로 특히 뇌물 및 비자금 등의 부패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과 정책방향”, 1999.9.8 - 조선일보, 1999.9.8) 역적인 상황 또한 여기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실상(Real field)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예측·예비·예책의 착란이 거듭(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건물이나 교각 등의 붕괴사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 간격을 또 다시 찰라적인 권력이나 금력 그리고 명예욕의 허상으로 메꾸려 하는 과정을 거듭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 진웨어(Gene-ware)는 은폐되고 차단되어, 기업에 있어서 고정비 상승압에 비유될 수 있는 상호간의 고정막이 [그림 3] 및 [그림 4]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기·질투·모략하는 사기건수나 무고량 등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개개인의 독특한 창조적 발상이나 본원의 작업이 등한시되어 결과적으로 [그림 1] 및 [그림 2]처럼, 기업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한 것 같다.

#### 4.2 일본 산업의 휴먼웨어적인 특징

미시적 측면에서의 일본 제조업체의 특징과 거시적 측면에서의 일본 산업의 특징은 「민간생활용품 지향」과 대화혼(大和魂)등의 「전통의 현대화」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최첨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응용보다는, 간단한 민생용에 적용해 왔었던 것과, 일본의 산업이 개혁(시장화에 초점을 두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오랜 전통의 기예와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의 독창성이나 토산물에 따른 「1.5차 산업」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과 더불어 진행되어 왔었다[12]는 것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물 및 자연에는 혼(魂)이 깃들여 있어[13] 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자신의 자연환경 및 시간적으로 전수되어온 전통을 산업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의인화에 능숙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이나, 기계 하나 하나에 애칭을 붙이며 관리하는 태도 등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과거 유교나 불교가 계급이나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태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평가[1][3]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원점복귀적사상」[24], 생산방식에서는 「근본추구(Getting the basic right)」로도 표현되고 있는 바의, 원래적 자아를 찾으려는 본능적 과정에서 진웨어(Gene-ware)를 활성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선진국병, 신세대파워증강에 따르는 자본주의 정신 쇠퇴 현상으로 인해, 종신고용제등의 지금까지의 일본경제를 뒷받침해 왔던 일본식 경영의 장점마저 재검토하는 등의 「原資本主義」회귀 운동[3]도 이러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화혼(大和魂)이나 화혼양재(和魂洋材)등으로도 나타나는 혼(魂)과 이에 따른 전통중시적 풍토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해 왔던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산업은 또 다시 진웨어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 매체로서 역할 해 왔던 경우가 비교적 많아 보인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비교적 진웨어(Gene-ware)의 발상이 그 독립변수가 되어, [그림 3] 및 [그림 4]에서도 나타나 듯, 상호간의 고정막이 비교적 적어 서로 뒷받침 해주고 이끌어 주는 협력적인 분위기로 인해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착안이라 하더라도 [그림 1] 및 [그림 2]에서와 같은 기업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5. 결 론

일본의 경제성장은 기적적이라고도 표현될 만큼, 공업국으로서의 경험 및 자원이 풍부한 다른 지역보다도 그 성과가 앞서 왔으며, 그 과정상 범죄율은 감소해왔고 또한 세계적 최장수국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경제성장의 근거 및 원동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평가되어 왔으며, 그 중 「대화혼(大和魂)」 등의 전통 및 화(和)를 중시하는 그들의 태도적 특징이 그 동기에 대한 일반적 견해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과 문화적 교류 과정 그리고 특히 여러 유전자 분석자료(앞의 2.1 참조)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결과는 한국의 원래적 기질을 일본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1400년 전에 일본 최대의 사찰인 사천왕사를 지은 한반도 백제의 금강이라는 장인에 의해 세워져 그 후 1400년 동안 39대가 혈통에 상관없이 그 원래의 소명을 지켜 왔던 기업인 금강조(金剛組)라는 건축회사의 그 경영성과-’95년 고베지진 때 타 건물과는 달리 붕괴되지 않고 그 건물을 유지했었다 한다-는 이를 질게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 또한 한국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 상징되는 일본의 자연환경과는 달리, 징코민이나 봉삼 등이 지닌 성분적 특질[8]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바 삼한사온사(三寒四溫史) 및 중화된 황토흙 등의 비교적 풍족하며 다중한 기질의 자연환경[20][11]을 지니고 있어 고유신토질(固有身土質)의 그 특이한 특성을 유추케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적도 있으나, 예컨대 일본과는 반대적 현상으로, 국민소득은 상승해 왔으나 오히려 범죄발생건수나 무고 및 고소량 등은 비례하여 증가해 온 것에서 나타나듯, 비교적 상호 증오하고 시기·질투·모략케 되는 풍토로 인해 본원(本源)의 작업이나 창조적 측면의 고유기질이 발현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능력이 지속되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을 진웨어(Gene-ware : 인적 측면의 하드웨어로서 생명적·유전자적 특질)가 자신의 초핵(Focus-kern)적인 고유잠재력을 실현(: Gene-Nascence)하고자 외부 환경과 교차 감응할 때, 최단 가능한 방법(Fast and shortest feasible solution)을 제공하는 휴먼웨어(Human-ware)의 매개체(Catalyst)적 기능에 산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접근해 왔는지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그 동안 주변의 여러 강대국등의 압박으로 인해 형성된 전통적 잠재의식으로 보이는 우쭐심리등과 같은 타자(他者)반응 지향적인 성향(지배/피지배 우월/열등 등)으로 인해, 이를테면 그 산업이 편법의 도구로서 치우친 감이 많아 오히려 진웨어를 억압하며 은폐시키는 방향으로 역할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정도 였다.

이에 일본의 「원점복귀사상」이나 「근본 추구(Getting the basic right)」로 표현되는 바의 원래적 자기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한국의 왜곡된 잠재심리(이 경우 도착(倒錯)이 아닌 석착(石錯)처럼 보인다)를 정상화하는 데에 유익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대륙과 해양을 매개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이를테면 지역화(신흥시장 및 세력의 등장)와 세계화(보수세력의 응집)로 전개되어 가는 생산 및 산업의 환경 - 특히 아시아 산업에 대한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기축통화의 영향은 극동의 화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게 한다 - 을 고려하면, 한국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익할 수 있어 보인다.



## 5. 참고문헌

- [1]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전통가치관과 자유시장경제이념(연구보고 91-01), p.90, 1991.
- [2]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일기업경영의 제문제, 계명대학교, p.17, 1986.
- [3] 김두겸, “일본자본주의 정신 그 형성배경과 과정”, 삼성경제연구소, 1995.10.
- [4] 김홍철, 일본인의 한민족에 대한 콤플렉스 2000년, 집문당, pp.171-186, 1993.
- [5] 勞務管理, 經營工學大系(10) 韓國工業標準協會, pp.225-255, 1982.
- [6]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연구소, 1997.
- [7] 박리혜, “생산체계의 탄력성향상을 위한 휴먼웨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7.
- [8] 송병락, “이런 면에서 일본을 앞선다”, 교수 10인이 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연구소, pp.165-182, 1996.
- [9] 서윤정, “기업의 부하와 능력의 균형을 위한 휴먼웨어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8.
- [10] 서윤정의 1인, “쿨롱법칙을 이용한 휴먼웨어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관리학회지, 4(1), pp.117-126, 1999.
- [11] 서윤정의 1인, “고유신토질(固有身土質)의 휴먼웨어적 전개”, 품질경영학회지, 28(1), pp.13-26 2000.
- [12] 신한중합연구소, 일본보고서, 들녘, pp.226-230, 1998.
- [13] 송병락, 경제는 시스템이다, 김영사, p.29, 1999.
- [14] 안병직 엮음,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pp.311-325, 1995.
- [15] 윤대림, 한국인, 현암사, p.270, 1994
- [16] 이득희, “윤리경영수압과 개방체제 실험(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12집, pp.421-460, 1972.
- [17] 이득희, “윤리경영수압과 개방체제 실험(I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14집, pp.271-330, 1974.
- [18] 이득희, “창조적 고유탄력성에 관한 연구(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40집, pp.345-380, 1996.
- [19] 이득희, “창조적 고유 탄력성에 관한 연구(II)”,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41집, pp.235-238, 1997.
- [20] 李得熙, 誠 : 信(敬天)·義(愛人)·業(實地), 녹색신문사, pp.51-53, 1997.
- [21] 이상헌, 파생상품시장, 넥서스, pp.244, 1997.
- [22] 이철우, “기업경영에 있어서 인성기능의 휴먼웨어적 접근”, 공업경영학회지, 22(51) pp.11-19, 1999.
- [23] 이철우, “기업에 있어서 창조적 인성계발을 위한 휴먼웨어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p.56-61, 2000.
- [24] 이봉진, 일본식경영, 한국경제신문사, pp.381-382, p.484, 1992.
- [25] 이학용, 국가경쟁력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경제신문사, 1994.
- [26] 장기신용은행 부설 경영연구원, 한국의 기업정신, 장기신용은행, p.188, 1998.
- [27]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p.60, 1997.
- [28] 최상진외 2인, “한국인의 우쭐심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pp.391-400, 1997.
- [29] 홍성학, “전인성에 기초한 IE의 전개(II)”, 주성대학논문집, 제 7집, p.281, 1998.
- [30] 형사정책연구원,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p.2, 1997.
- [31] 프란츠 부케티츠, 김영철 역, 사회생물학 논쟁, 사이언스북스, p.120, pp.161-163, 1999.

- [32] C.햄프든터너외 1인. 정현주 역, 기업문화혁명, 자작나무, p.108, 1995.
- [33] 마쓰오카 세이코. 김승일외 1인 역, 정보의 역사를 읽는다, 넥서스, p.13, 1997.
- [34] 島田晴雄, ヒューマンウェアの經濟學, 岩波書店, pp.88-112. 1988.
- [35] 田名部 雄一, “日本犬 起源 關 考察”, 獸醫畜産新報, 51(1), pp. 9-14, 1997.(중앙일보, 1997, 9 . 3)
- [36] Hanihara kazuro, 日本人新起源論, 角川選書, pp.86-94. 1990.
- [37] Jared Diamond, “Japanese roots”, Discover, June, pp.86-93, 1998.
- [38] Stoshi Horai 外, “mtDNA Polymorphism in East Asian Popu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opling of Japan”, Am. J. Hum. Genet., 59, pp.579-590, 1998.
- [49] 니콜슨, 이왈수 역, “인간행동의 선천성과 기업경영(How hardwired is Human behavior)”, HBR, November-December, pp.103-121, 1998.
- [40] Wook Kim. Dong Jik Shin. Sun Ah You. Yung Jin Kim, “Y-Specific Polymorphisms of the YAP element and the locus DYS19 in the Korean population” Am. J. Hum. Genet, 43, pp.195-198, 1996.